

三國時代의 〔刀〕選好思想

－ 〔刀〕·〔刀環〕의 接點으로서의 〔돈〕의 語源模索 －

김 병 하

〈目 次〉

- I. 머리말
- II. 貨幣發展段階
- III. 「刀」選好思想
- IV. 中國貨幣의 流入과 그 影響
- V. 貨幣의 循環思想과 「돈」說에 대한 비판
- VI. 「돈」의 語源과 「刀」·刀環
 - 1. 「돈」의 語源과 「刀」
 - 2. 「돈」의 語源과 刀環
- VII. 結 言

I. 머리말

삼국시대에는 「刀」選好思想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刀字가 칼의 뜻으로만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귀족의 명칭에 刀字가 사용될 정도로 刀字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에 있어서는 「刀」가 칼 이외에 貨幣의 뜻으로 흔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刀」선호사상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왕비 이름에도 刀字가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刀」선호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사용하는 「돈」의 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의 어원은 鑄貨의 端初의 流通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것은 貨幣史 研究에 있어서 해명하여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刀環 選好思想도 있었다. 刀環은 칼고리를 의미하며, 동양의 漢字文化圈에서는 일찍부터 吉祥으로 여겨져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돈」의 어원인 「刀」가 「돈」으로 변환한 것은 「刀環」의 병용(併用)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특히 이것은 필자의 이론인 半物品貨幣段階의 논거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광범한 鑄貨流通 및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란 命題의 부당함을 해명하려고 한다.

Ⅱ. 貨幣發展段階

貨幣란 여러 가지 상품이 내포하는 價値의 일반적 等價物이다. 그리고 가장 유동적인 資產이며, 계산단위로서 표시된다. 그 기원은 原始社會까지 소급된다. 분업이 발달하고 상품교환이 진행됨에 따라 貝類나 소(牛)·布 등이 物品貨幣로 등장하였고, 뒤에 金·銀이 추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鑄貨와 紙幣가 지배적인 유통수단으로 되었다.

金屬은 耐久性과 細分性·結合性 등이 우수하여 사람들은 점차 교환수단으로서 금속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物品貨幣→鑄貨와 같은 圖式은 A.Smith 이래 학계의 정설처럼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천편일률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 물품화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반물품화폐의 단계를 거쳐서 원형의 주화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추포(麤布)와 같은 반물품화폐가 오랫동안 유통되었다. 중국에서는 子安貝(cowry)에 이어 농기구·「刀」등 물품화폐가 오랫동안 유통되었고, 「刀」는 점차 반물품화폐화 하여 形圓孔方錢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시대에 燕 나라에서 널리 유통되었던 명도전은 반물품화폐가 진화한 형태이며, 그 刀環이 분리되어 형원공방전(엽전)이 되었다.¹⁾

이상의 화폐발전단계에서 볼 때 삼국 및 통일신라는 물품화폐 발달의 말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稗米와 마포, 苧布(모시)가 중요한 유통수단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규모 거래 수단은 마포였고, 그것은 疋 단위로

1) 明刀錢은 明刀貨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나, 여기서는 일반적 용법에 따랐다. 「刀」는 錢과 같은 뜻이 있고, 발생사적으로 「錢鑄(전박)」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明刀貨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거래되었다. 그리고 포는 반물품화폐화 하였다. 반물품화폐인 추포가 광범하게 유통되어 사회문제화한 고려말, 房士彦의 말에 의하면 추포는 동경(경주)에서 발단이 되어 그것이 각 주에 보급되었다고 한다.²⁾ 우리나라는 포의 반물품화폐단계가 비교적 긴 편에 속한다. 그 원인은 집권적 봉건정부의 강력한 抑商政策과 수탈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고조선부터 신라말까지 금속화폐가 전혀 유통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中國鑄貨가 널리 유통된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진한에서는 鐵錢(일정한 모형의 鐵錠)이 유통되었고,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금·은이 중요한 교환수단이었다. 그리고 신라의 고분에서 五銖錢과 開元通寶등 中國錢이 출토되었는데, 백제의 武寧王陵에서는 五銖錢 한 꾸러미와 買地券이 발굴되었다. 거기에는 錢 1萬文을 주고 地神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무덤을 쓰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³⁾

그러나 지폐는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삼국유사』의 월명사 도술가전 중의 「紙錢」을 근거로 성덕왕 이후 用錢이 분명하다고 하는가 하면,⁴⁾ 월명사는 자기 누이동생의 죽은 혼이 극락세계로 가는 도중 여비로 쓰도록 지전=지폐를 제단에 올려 놓았다고 하는데,⁵⁾ 이 때의 지전은 지폐가 아니라 돈 모양으로 둥글게 뚫린 「종이」였던 것이다.

Ⅲ. 「도」선택사상

칼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 도구이며 생산수단으로서 소중한 것이지만, 한편 살상수단이라는 관념 때문에 刀字가 人名이나 지배자의 稱號에 사용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 속성이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人名이나 共同體 首長인 九千 稱號 등에 刀字가 사용되었다. 예컨대, 新羅 法興王 妃 巴(保)刀夫人, 眞興王 妃 思刀(道)夫人, 眞智王 妃 知刀(道)夫人과 같이⁶⁾ 왕비의 이름에 刀字가 들어 있다. 그리고

2) 『高麗史』 卷79 恭讓王 3년 3월 참조.

3) 『武寧王陵發掘調查報告書』, 1973, P.46-41 참조

4) 柳子厚, 『朝鮮貨幣考』 P.47 참조

5) 趙炳贊, 『韓國市場經濟史』, 1992. 동국대 출판부, P.40 참조

6) 『三國遺事』에 의거함. 단, 괄호 안은 『三國史記』 참조.

駕洛國의 九千의 稱號 중에도 我刀干・汝刀干・彼刀干・五刀干과 같이 刀字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의 지배층이 刀의 뜻을 잘 모르고 오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刀」는 칼이란 의미 이외에 화폐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도자를 선호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 있어서는 刀가 錢의 뜻으로도 사용되었고,⁷⁾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明刀錢이 유통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刀字를 꺼리기는 커녕 왕비의 이름과 九千의 칭호에 까지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나친 刀字의 남용에 대해서 지식인의 거부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三國史記』에 있어서는 일부 왕비 이름 중의 刀字가 「道」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지식층의 거부반응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거부반응은 駕洛國의 朝廷에서도 일어났다. 首露王 24년 8월 왕은 九千이 비록 백성의 어른이라 하나 칭호가 野夫와 같아서 점잖지 않고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我刀・汝刀・彼刀・五刀를 我躬・汝諾(여해)・彼藏・五常으로 고쳤다. 다만 구간 중에서 神天은 神刀로 개정하였다.⁸⁾ 「刀」가 ‘백성의 어른’ 칭호로서 점잖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神天」을 「神刀」로 개정한 것은 「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刀」를 화폐의 뜻으로 해석하면 지배자의 칭호로서 고상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위급 首長의 칭호에 刀字를 사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刀字는 그 밖에 가락국 왕자인 茂刀 角干에도 들어 있고, 고구려 將軍 刀龍(도감)의 이름에도 들어 있다. 刀字의 남용에 대한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刀」選好思想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신세계에 있어서 鑄貨에 대한 애착심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교환수단으로서의 「刀」思想은 남아 있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刀」「刀環」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돈」이란 말도 死語化하지 아니한 채 늘 회자되고 있었다.

7) 『史記』平準書에는 “刀者錢也”라 하였다.

8) 『三國遺事』卷2, 駕洛國記 참조.

IV. 中國貨幣의 流入과 影響

중국은 세계에서 貨幣制度가 가장 일찍 발달한 나라에서 속한다. 중국의 고대에는 금속생산수단인 농기구와 칼이 물품화폐로 유통되었는데, 팽이 같은 농구는 점차 布錢(鑄錢)으로 발전하였고, 가래(泉)는 帛貨, 그리고 筋枝用(전지용) 칼과 같이 생긴 다용도 칼은 刀貨로 진화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되어 있고, 정치·경제적으로 교류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先進의 鑄貨가 유입되었고, 중국의 화폐제도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고대 중국의 주화로 明刀錢과 大泉五十·布錢·貨泉·半兩五銖錢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발굴된 것은 명도전이다. 명도전은 기원전 약 350년 이후 연 나라(B.C. 5세기—B.C. 3세기)에서 주조된 화폐이다. 중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주화의 하나가 淸川江을 중심으로 鴨綠江과 大同江 사이의 지방의 退藏遺蹟·주거지·고분 등에서 발굴되었다. 한 곳에서 4천개 이상의 명도전이 발굴된 적도 없으며, 약간의 布錢도 발굴되었다. 이들 古錢이 지금까지 樂浪古墳에서 출토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그것이 漢의 四郡 설치 이전의 유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⁹⁾

明刀錢이 發見된 곳(괄호 안은 數量)

1. 평북 영변군 남신면 도관동 (약 15개)
2. 평북 위원군 승정면 용연동 (약 400개)
3. 평북 창성군 동창면 이천동 (약 50개)
4. 평북 강계군 전천면 중암동 (약 250개)
5. 평북 강계군 화경면 길다동 (약 4,000개, 포전 8개)
6. 평북 자성군 서해리 (약 2,000여개, 一化錢 650, 반냥전 3개)
7. 평북 강계군 전천면 길상리 (약 2,700개)
8. 평북 영변군 오리면 세죽리 (약 2,500개)
9. 평북 철산군 등관
10. 평북 철산군 가도리

9)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史, P50 참조.

11. 평남 영원군 온화동 온양리 (수백개, 포전)

V. 貨幣의 循環思想과 「돈」說에 대한 비판

화폐가 광범하게 유통되는 곳에는 화폐의 循環思想이 있게 마련인데, 중국에는 일찍부터 화폐의 순환사상인 青蚨思想 즉 子母錢사상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화폐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百科全書的 실학사상가 李圭景은 “用其母 留其子 用其子 留其母 輪回自來 循環不已”¹⁰⁾라 하여 중국의 화폐순환사상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된 화폐의 순환사상을 돈은 돌고 돈다는 말과 연결시켜 현대어 「돈」의 어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부회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폐 순환사상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돈은 천하의 돌고 도는 것”이라고¹¹⁾ 하며, 중국에서는 子母錢 思想 이외에 “無翼而飛 無足而走”라¹²⁾ 하여 돈은 날개가 없어도 날고 발이 없어도 달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화폐가 광범하게 유통되는 곳에는 화폐의 순환사상이 있게 마련이지만 화폐순환사상이 화폐의 어원이 된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즉 「돈」의 어원은 순환사상과 관계가 없다. 그 이유는 화폐의 순환이 지극히 우회적이며 시간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란 말은 주화가 보편적으로 유통된 뒤에 생긴 말이기 때문에 순환사상은 「돈」이란 어원과 무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주화가 전면적, 지속적으로 유통된 것은 朝鮮朝 肅宗 4년(1678년) 이후이므로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란 말은 적어도 그 이후에 생겼다고 볼 수 밖에 없고, 『月印千江之曲』의 「銀돈」과 같이 그 이전에 「돈」이란 말이 사용되었으므로 「돈」의 어원은 화폐의 순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10) 『五洲衍文長箋散稿』 青蚨辯證說.

11) 金は天下の回りもの.

12) 『漢韓大辭典』 錢條 魯褒 錢神論, 東亞出版社 참조.

VI. 「돈」의 語源과 「刀」·刀環

1. 「돈」의 어원과 「도」

「돈」의 語源이 貨幣의 循環思想과 관계가 없다면 「돈」이란 무엇에서 유래하였는가가 문제인데, 필자는 한자의 刀(도)가 「돈」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明刀錢이 유사 이래 대량 유통된 최초의 鑄貨였고, 유일한 刀錢이었기 때문에 「刀」라고 불렀을 개연성이 있으며, 三國時代의 刀選好思想에서 보는 같이 刀는 즉 刀環이며 高麗朝 이전에는 錢字 대신 刀字가 주화의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刀者錢也……以其形如刀 故曰刀”¹³⁾와 같이 「刀」는 곧 「錢」이다. 고려시대에는 「刀」를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刀=錢 사상에서 유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高麗 宣宗 5년(1088)년 7월에 雜稅率을 정하였는데, “麻田一結 生麻十一兩八刀 白麻五兩二目四刀”로¹⁴⁾ 규정되어 있다. 즉 삼밭 1結 稅率은 생마 11兩 8刀, 白麻는 5兩 二目 4刀의 세율인 것이다. 이때의 「刀」는 돈푼=錢에 해당한다.

「돈」이나 「돈푼」의 뜻으로 「刀」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大覺國師 義天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貨幣論에 있어서는 錢·泉·布·刀가 한결 같이 並記되어 있다.¹⁵⁾ 『史記』의 「刀者錢也」의 뜻을 알고 있는 義天이 「錢」과 「刀」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것은 고려시대에 있어서 「刀」가 주화의 뜻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돈」의 어원과 도환

「刀」가 어느 때부터 돈으로 와전되었는 지는 확실치 않으나 「刀」와 「刀環」은 혼용되다가 「刀環」이 「돈」으로 변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돈을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말의 허구성과 「刀環」選好思想, 그리고 「刀環」 즉

13) 『事記』平準書.

14) 『高麗史』食貨書 1.

15) 「大覺國師文集」12 참조.

刀錢임을 감안할 때 「刀」→「돈」의 변화과정에서 「刀環」의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明刀錢이 유통되던 초기에는 「刀」라 칭하다가 뒤에 「刀」와 「刀環」이 병용되었고, 「刀環」選好思想과 刀環은 대전(大錢)과 같다는意識이 보급된 뒤에는 「돈」으로 변화하였고, 한자로 표기할 때에는 「刀」자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刀環」은 칼고리이며, 明刀錢처럼 고리가 있는 刀錢을 가리킨다.¹⁶⁾ 「漢書」食貨志「下」에 “王莽(중략)造契刀(중략)其環如大錢 身形如刀 長二寸 文曰 契刀五百”과 같이 王莽代에 契刀를 만들었는데, 그 고리는 큰 돈(大錢)과 같았고, 몸체는 칼(刀)과 같았으며, 길이는 2촌이며, 「契刀五百」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칼 모양의 주화를 일명 刀環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契刀는 몸체(칼 부분)에 비하여 고리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즉 명도전에 비하면 크게 진화하였던 것이다.

물품화폐인 刀가 半物品貨幣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실용적 칼이 무딘 칼→작고 못 쓰는 칼→칼고리(刀環)의 分離(形圓孔方錢)의 순서로 변천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圓形錢을 칼고리로 간주하였고, 刀錢=刀環 思想의 영향으로 「돈」이란 말이 생겼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 「刀環」選好思想이 보편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刀錢觀念 이외에 李陵의 故事에 기인하는 것이다.

漢의 李陵이 흉노에 잡혀갔을 때 霍光(광광) 등이 찾아가 酒席에서 눈짓을 하며, 刀環을 돌려 漢으로 귀환할 것을 재촉하였다는¹⁷⁾ 故事 때문에 「刀環」選好思想이 한층 더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즉 「刀環」의 「環」은 「還」과 통하는 字이므로 「刀環」은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칼이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던 시기에 있어서 戰場에서의 승리와 귀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軍刀에도 손잡이 끝 부분에 고리를 달게 되었다.¹⁸⁾ 軍服에 차는 軍刀는 특히 환도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고

16) 諸橋徹次著『大漢和辭典』刀部, 刀環, 日本大辭典 刊行會『日本國語大辭典』刀環 참조.

17) 『漢書』李陵傳 참조.

18) 日本에 있어서도 日本刀를 고리가 달렸기 때문에 環刀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名古屋城 展示物 참조)

분에서 많이 출토되었다.¹⁹⁾

이상과 같이 「刀環」選好思想은 李陵의 故事로 말미암아 東洋의 三國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지만, 이와 같은 배경이 刀環은 刀錢이라는 관념을 한층 더 강하게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刀와 刀環이 병용되다가 「돈」으로 와전될 수 있는 音韻論的 연구는 필자의 영역 밖에 속하므로 國語學者의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 없지만, 주어진 자료로써 이와 같은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刀는 錢과 같은 뜻이며, 刀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대량으로 유통된 주화였다는 것, 그리고 刀에는 고리(環)가 있고, 그 고리는 점점 커졌음에 대하여 刀의 몸부분은 점점 작아져서 칼은 없어지고 결국 고리부분만 남게되어 그 形圓錢(엽전)은 刀環이라고 일컫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도·도환은 돈의 語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刀는 錢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中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錢鑄(전박이란 농구)이 유통된 양자강 유역 이남에서는 주로 주화를 錢이라 하였고, 刀流通地域인 山東半島 이북에서는 주화를 刀라고 호칭하였다.

한글이 창제되어 사용된 조선시대의 문헌에 錢의 訓讀이 「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선초기에는 이미 「돈」이란 말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훨씬 그 이전의 「돈」의 語源이다. 다만 「돈」을 漢字로 取音할 때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刀」였고, 敦이나 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역시 「돈」은 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VII. 結 言

우리나라는 貨幣史에 있어서 半物品貨幣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한편에 있어서는 中國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鑄貨가 유통되었다. 明刀錢은 대동강 이북에서 광범하게 유통된 최초의 주화였으며, 明刀錢의 「刀」 또는 이

19) 三國時代의 고리칼은 日本에까지 전해져 日本刀의 기원이 되었는데, 日本古文獻에는 고리칼을 가리켜 高麗刀라고 불렀다고 한다. (權鶴洙, 「고리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참조)

것이 발달하여 고리만 남게 된 「刀環」은 「돈」과 같은말로 사용되었다. 이것으로써, 「刀」와 「刀環」의 歷史的 接點問題는 어느정도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A. Smith 이래 천편일률적으로 화폐의 발달을 物品貨幣 → 鑄貨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물품화폐의 단계가 길며 독자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반물품화폐의 標本國과 같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간이 길었고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刀」選好思想이 일정하게 정착되어 있었다. 명도전이 유통계에서 사라진 시기였지만 「刀者錢也」라는 인식과 「刀環」選好思想 때문에 「돈」을 한자로 표기할 때에는 오랫동안 「刀」자를 사용하였음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러므로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한다는 貨幣의 循環思想과 「돈」의 語源은 무관한 것이다.

刀와 刀環은 같은 말로서 병용되었다는 것은 刀가 「돈」으로 되는데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刀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진화하여 칼 부분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고리(環)만 남게 되고 고리는 돈과 같다. (其環如大錢)는 意識때문에 刀는 刀環과 같은 뜻이 되었다. 그리하여 刀(도)의 음이 「돈」으로 와전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刀가 「돈」으로 와전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音韻論的 연구는 필자의 전공 밖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國語學者의 연구에 기대하면서 여기서는 하나의 接點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